

## ‘독도 수호’ 불퇴전 신심으로...

태고종 ‘독도 지키기 전물군경 합동위령영산대법회’ 현장



전물군경 위령 영산재를 시연(사진 위)한 뒤 태고종 스님들과 신도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 땅’임을 외치고 있다.

면적 0.186km<sup>2</sup>의 독도(獨島)는 울릉도 동남쪽 500리(87.4km)의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섬이다. 우리민족은 5000년 장구한 세월동안 독도를 삼봉도(三峰島), 우산도(于山島), 가지도(可支島) 돌섬으로 불렀다. 현재의 명칭인 ‘독도’의 표기는 1906년 울릉도 초기 이주민인 전라도 남해안 출신 사람들에 의해 ‘독섬’으로 발음되면서다.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는 동해의 햇살을 받아 초목과 해초가 살아 숨쉬는 천혜의 자연이 일품이다. 여기에는 하이드레이트(얼음으로 된 천연가스) 6억톤 등 무수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는 한국의 보물섬이다.

그레선지 일본은 러일전쟁 직후인 1906년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하고 영유권을 주장하여 현재까지 역지를 부리고 있다.

400여 불자 참여 일본 역사 왜곡 규탄 및 천도재 일운 스님 영산재 시연, 전물군경 극락왕생 기원 독도 주민 김성도씨·독도수비대 등에 위문성금

태고종이 5월 8일 울릉도 도동항 선착장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베총리 등 일본정부관계자들의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는 만행을 규탄하고, 독도 수호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진 분들을 천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초 독도의 부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독도 지키기 국민화합 기원 전물군경 합동위령영산대법회’는 높은 파도로 선박의 접안이 어려워 독도에서는 열리지 못했다. 결국 독도를 2번 순회하며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를 지키자’는 우리의 염원을 수차례 외친 후 도동항으로 돌아와 부두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법어에서 “호국불교의 전통을 지닌 한국불교의 전통종단으로서, 이번 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회의 공력으로 불자들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시 한 번 우리 땅 독도의 현실을 바로 알고, 전 국민이 독도지킴이가 될 수 있길 기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사를 주관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장 환우 스님(봉원사 주지)은 봉행사를 통해 “목숨을 걸고 독도를 지키다 산화한 순국선열들을 위로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우리국토의 동쪽 끝 독도가 우리의 역사이자 우리민족 자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진여심 봉원사 관음회장은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며 지성으로 발원한다”며 “우리 땅 독도를 수호할 수 있도록 불퇴전의 신심으로 기도드린다”고 발원했다.

김영문 울릉군 부군수는 축사에서 “울릉도 역사상 처음으로 불교 위령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선조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이어받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남석 울릉군 교육장도 “일본을 규탄하고 전물장병들을 위령하는 행사를 해주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영산대재를 통해 전물군경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그분들의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부 순서로 진행된 위령대제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가 시연됐다.

살과 죽음을 뛰어 넘어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한마당에 모여 고통, 망상 등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음(진리)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를 기원하는 마당인 영산재는 준보유자 일운 스님을 비롯 이수자들이 참가해 장엄하게 봉행했다.

위령대제는 5000년동안 독도를 지키는데 힘쓴 스라인 이사부 부터 조선후기에 활약한 민간 외교가 안용복, 1953년 휴전협정 대상을 비롯한 6.25참전 경력이 있는 열기 왕성한 청년 33명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독도의용수비대, 독도주민 등록 1호 최중덕씨의 영기천도로 진행됐다.

태고종은 법회가 끝난후 현재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씨와 독도수비대, 독도표지석회에 금일봉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

행사에 참가한 태고종 전법사인 수덕화 보살(남양주 양수리)은 “독도를 가까운 곳에서 보고 돌아오니 우리 땅을 소중히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며 “독도를 수호하다 무명을 달리하신 전물군경들이 좋은 곳에서 편히 쉬셨으면 하는 기원을 했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씨가 통통 배를 타고 반갑게 환영하고 있다.

###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썩향양초, 식물성 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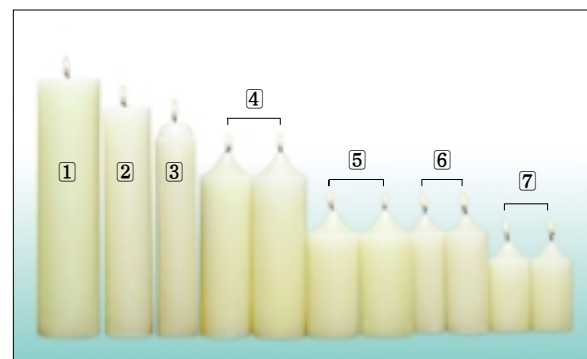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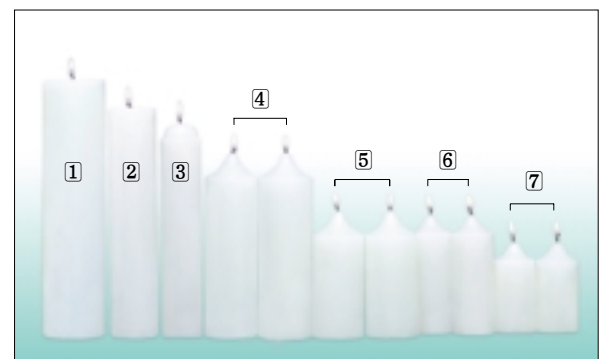
#### ▶ 밀납양초(蜜蠟洋燭)

- ① 밀납초(1~4호까지 8개입 받침대 2개) 선물세트
- ② 밀납초금강경(7개) 선물세트
- ③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 ④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⑤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⑥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⑦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⑧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 약썩향 양초

- ① 원기둥 7.4φCm × 29Cm
- ② 돈타레 5.6φCm × 27Cm
- ③ 밀 대 4.7φCm × 25Cm
- ④ 1호 5.9φCm × 20Cm
- ⑤ 2호 5.9φCm × 14Cm
- ⑥ 3호 4.7φCm × 13Cm
- ⑦ 4호 4.7φCm × 10Cm



#### ▶ 식물성 양초

- ① 원기둥 7.4φCm × 29Cm
- ② 돈타레 5.6φCm × 27Cm
- ③ 밀 대 4.7φCm × 25Cm
- ④ 1호 5.9φCm × 20Cm
- ⑤ 2호 5.9φCm × 14Cm
- ⑥ 3호 4.7φCm × 13Cm
- ⑦ 4호 4.7φCm × 10Cm